

양궁 월드컵 한국, 금5개중 4개 휩쓸어

남자 단체전 미국에 올림픽 패배 설욕

여자는 인도에 아깝게 쳐 은메달 그쳐



양궁 월드컵서 은메달 획득한 한국 여자 대표팀. 왼쪽부터 장혜진(LH), 기보배(광주시청), 윤옥희(예천군청).

으로 16점 차로 달아나 일찌감치 승

기를 잡았다.

반면 미국은 바람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훌륭했다. 미국의 브

레이디 엘리슨, 제이크 카민스키, 조 웬

친은 8점, 6점을 연발하며 스스로 무

너졌다. 한국은 끝까지 안정적으로 득점해 29점차 대승을 냈다.

◇여자 양궁, 인도에 석패=기보배(광주광역시청), 윤옥희(예천군청), 장혜진(LH)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여자부 결승전에서 인도에 215-219로 석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들은 16점, 8점, 4점에서 각각 225점, 222점, 224점을 기록했으나 결승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기보배는 여자 개인 결승전에서 윤옥희와 맞붙어 2-6으로 점수를 차지했다. 윤옥희는 앞서 열린 혼성부 우승을 포함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고교생으로 윤옥희처럼 등장한 이승윤은 성인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등극하며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2관왕에 올랐다.

한편 기보배는 다음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김홍일(조선대)이 지난 25일 인천시 문학경기장 인공암벽에서 열린 '제13회 인천광역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남자 일반부 나이도 경기에서 오버 험(Overhang=암벽이 지붕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오르고 있다. (광주신악연맹 제공)

김홍일 금메달·조승운 은메달

(조선대)

(광주 전자공고)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명 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광주산악연맹 김정정 전무는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이 정식종목으로 체택됐다"며 "나이도의 김홍일, 속도 경기의 황평주·김현재(조선대)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 클라이밍(sports climbing)은 압력등반이 지나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별개의 장르로 독립 시킨 클라이밍의 한 형식으로, FRP 등의 구조물(인공암벽 국제 규격 높이 12m×길이 15m)에 인공 헐드를 설치해 놓고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을 따라 오른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조영선-최복음-김준영組 은메달

〈광주시청〉 〈광양시청〉 〈인천교통공사〉

세계 블링선수권대회

한국이 세계 블링선수권대회 남자부 3인조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영선(광주시청)-최복음(광양시청)-김준영(인천교통공사)이 한 조를 이룬 한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스트리리아운드 블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8일째 남자부 3인조 결승에서 캐나다 대표팀에 602-721로 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선전에서 404점을 기록해 4강 토너먼트에 3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준결승에서 예선 2위 쿨롬비아를 699-444로 크게 무찌르

며 기세를 살렸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캐나다의 상승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36개국, 428명의 선수가 출격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이날 은메달 이외에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1개,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 1개를 냈다.

류서연(광역시청)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아령왕(대만)을 224-18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4관왕에 빛나는 류서연은 세계선수권까지 휩쓸어 내년 아시안 게임 입상 전망을 한층 밝혔다. 신승현(천안시청)은 남자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생활체육회 '초·중등 토요 스포츠강사 교육'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지난 24일 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신규채용된 초·중등 토요 스포츠 강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토요 스포츠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강사 27명을 대상으로 학교체육의 이해와 성폭력 예

방교육을 비롯한 유소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강사들은 27개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교 체육수업 보조자로서 학교 내 교사와 함께 체육 수업을 지도 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양시 장애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성황

2013 광양시 장애인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26일 광양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복식, 일반경기 3종목으로 나눠 치뤄졌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